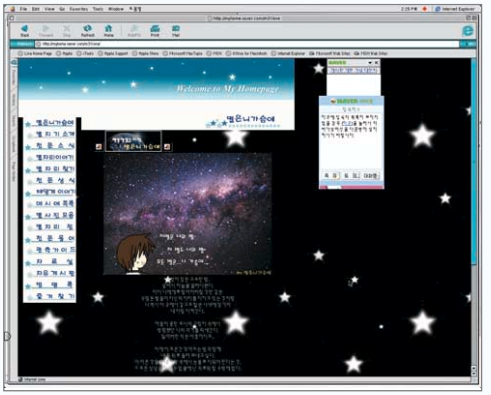
Welcome to Internet.com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뒤로 · 주소(D) http: //myhome.naver.com/m31love 이동



http: //myhome.naver.com/m31love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별' 이야기 듬뿍

글 _ 김인순 전자신문 기자 insoon@etnews.co.kr

어린이 날이었던 지난 5월 5일 새벽, 개기월식이 있었다. 지난 2001년 1월 10일 이후 3년 만에 나타나는 개기월식은 다시 3년 뒤인 2007년 8월 18일에 나타난다. 개기월식이란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 후 10~15일 사이에는 혜성이 나타나는 우주 쇼가 펼쳐졌다. 개기월식과 같은 신비한 우주와 천문 현상을 재미있게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천문학자가 꿈이라는 '별은 니가슴에' 라는 ID의 소유자가 운영하는 '별 볼일 있는 사람(http://myhome.naver. com/m31love)' 이 바로 그 곳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갖가지 하늘에서 벌어지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천문 소식, 각계절별 별자리의 변화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록해 두었다.

천문 소식란에서는 우주의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블랙홀' 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 천체의 신비로운 이동 현황이 담겨있다. 또 지구를 떠나 새로운 행성 정복을 꿈꾸는 인류의 목표 '화성 탐사기' 등이 소개됐다.

또,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별자리 신화에서부터 각계절별 별의 움직임을 모두 기록해 두는 꼼꼼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코너에 의하면 봄철 작은 사자자리와 살쾡이 자리는 1690년 폴란드인인 헤벨리우스(J.Hevelius, 1611~87)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자리는 살쾡이처럼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헤벨리우스가 '살쾡이 같은 눈을 갖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별자리' 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만든 별자리라고 전해진다.

이 사이트에서는 까맣기만 한 밤하늘에서 어떻게 별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바뀌는 별자리의 밤하늘 배치도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블랙홀' 과 반대되는 '화이트홀' 을 들어본 적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 역시 이 사이트의 천문 상식 코너에서 얻을 수 있다.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반대로 모든 것을 내뿜는 하얀 구멍이라고 한다. 화이트홀은 이론적으로 얻어진 가상의 구멍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화이트홀과 관련되어 나타난 현상이 우주 공간에서 관측된 적은 없으며, 우리 우주 안에 정말로 존재하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사이트는 설명하고 있다.

태양계 이야기에서는 '수 · 금 · 지 · 화 · 목 · 토 · 천 · 해 · 명' 으로 알려진 태양계 각 행성의 사진과 설명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또 각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특히 '메시에(Messier)'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메시에란 18세기의 유명한 천문학자의 이름으로, 이 학자가 혜성 탐색시 있을 수 있는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밤하늘에서 혜성과 유사한 대상 110개를 모아 만든 목록이 바로 메시에 목록이다. 메시에 목록은 밤하늘의 성운, 성단, 은하들 중 소형망원경으로 관측할 만한 대상의 대부분이 수록되어 있어 기본적인 별자리를 익힌 사람들은 반드시 이 메시에목록 정복이 필수라고 홈지기가 설명하고 있다. 사이트에는 각성운, 성단, 은하의 메시에 목록과 사진이 게재돼 있다. 이외에 각별자리의 아름다운 사진과 천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수록돼 있다.

한편, 천체 관측을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를 위해 맨눈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십계명이 올라있고, 자료실에는 월령 달력과 목성 위치 배치 프로그램 등이 수록돼 천문과 함께하는 생활도 가능하게 꾸며졌다. ST

글쓴이는 숭실대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 후 한국전파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

Internet zone